후보 15명 난립 다자 구도… 4선 노린 우윤근 독 될까 약 될까

■누가 뛰나

기존의 광양·구례 선거구가 선거구 재획정 결과, 광양·곡성·구례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선거구도에도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7일 현재 14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모두 광양 출신이다. 그런데 곡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이 이곳으로 출마를 결심하고 최근 지역구 곳곳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 출신만의 선거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4선에 도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후보가 도전한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우 의원에 대한 지역구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으나 3선 의원의 저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도 있다.

◇새누리당=호남에서는 이례적으로 3명이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공천 경쟁을 하고 있다. 이옥재(60) 우주자동차 대표, 조성학(53) 당 중앙위원회 사이버단 부단장, 이승안(63) 전 당협위원장이 그들. 이 대표는 방송통신대를 졸업한 발명가라고 밝히고 있고 조 부단장은 영남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제조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남대를 졸업하고 (주)메인테크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지난 대선 때 광양·구례 당협위원장을 맡아 득표 활동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제1야당이지만 단 두 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우윤근(58) 의원, 그리고 이에 맞서 안준노(56) 전 문재인 대통령후보 노동특별보좌관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주류 친노(親盧)계로 분류되지만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우 의원은 "광양과 구례의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와 목성뜰 개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등 굵직한 사업들을 4선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야권통합과 정권교체에 앞장서고, 분권형 권력구조와 지방분권시대를 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정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이름	**이승안**	**이옥재**	**조성학**	**안준노**	**우윤근**	**김정현**	**김현옥**	**남기호**
나이	62	60	53	56	58	56	71	58
약력	·전) 메인테크 대표이사 ·전) 당 광양·구례 당협위원장	·현) 우주자동차대표 ·전) 인간연구소장	·현) 지구촌 문화예술 재능나눔운동 본부회장 ·현) 한반도통일 정책위원 지회장	·전) 문재인대통령후보 노동특별보좌관 ·전)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상임이사	·현) 국회의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현) 국민의당 대변인 ·전) 더민주 수석 부대변인	·전) 조선대·조대부고 총학생회장 ·전) 김대중대통령후보 노동특별보좌관	·전) 광양시의원 ·전) 전남도의원

정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무소속
이름	**서동용**	**정인화**	**최유성**	**김광영**	**박형모**	**유현주**	**장대범**
나이	51	58	51	78	48	45	38
약력	·현) 당 정치혁신특위 상임의원 ·현) 민변 회원	·전) 광양부시장 ·전) 전남도 관광문화국장	·전) 18대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특보 ·전) 장안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전) 공군사관학교 교수 ·전) 광주대교수	·전) 교육행정직 공무원 ·전) 경남 주산·부기 학원 강사	·전) 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전) 전남도의원	·전) 유니세프 후원회원 ·전) 월드비전 후원회원

새누리 이승안·이옥재·조성학 후보 등록

더민주 현역 우윤근에 안준노 경선 도전

국민의당 김정현·김현옥·남기호·서동용·정인화·최유성 6명

무소속 김광영·박형모·유현주·장대범 표밭 다져

노무현 대통령후보 부산선거대책본부장과 한국산업보건안전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낸 안 전 보좌관은 "정치·공직·노동·시민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우리 정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당=김현옥(71) 전 김대중 대통령후보 노동특별보좌관, 서동용(51) 변호사, 정인화(58) 전 광양부시장, 최유성(51) 전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조직특보, 남기호(58) 전 전남도의원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여기에 김정현(56) 중앙당 대변인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정 전 부시장과 남 전 도의원은 안철수 대표 측, 서 변호사와 최유성씨는 천정배 대표 측, 김 대변인은 동교동계 인사로 각각 분류된다.

정인화 전 부시장은 전남도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국장과 본부장 등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이다. 지난 6·4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 23.0%라는 비교적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며 이후에도 지역에서 기반을 다졌다. 그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화합과 소통의 정치적 리더십을 확립,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며 출마했다.

남기호 전 도의원은 광양시의원 3선과 시의회 의장,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등을 지낸 지역 정치권의 터줏대감이다. 그는 "지금은 새로운 대안정치·민생정치·생활정치가 절실한 때"라며 "변화를 밀어붙일 새로운 인물,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도전장을 던졌다.

민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해온 서 변호사는 완전한 정치신인임을 강조한다. 세월호참사 때 제 역할을 못하는 야당에 분노, "야당을 바꾸는 씨앗이라도 되겠다"며 정치에 뛰어 들었다. 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깨어있는 시민이 돼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최씨는 이낙연 의원 보좌관과 박원순 서울시장후보 조직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현재 한국 해양정책학회 이사다. 그는 "고향과 부모를 떠나지 않고도 학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국민의당 경선 구도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른 김 대변인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15년 동안 대변인실에서 잔뼈가 굵었다. 권노갑·한화갑 전 의원 등 동교동계 인사들의 전폭적 지지를 받음은 물론 안철수·천정배 대표와 김한길 선대위원장 측과도 교류가 깊다.

지난 6·4지방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김현옥씨는 "자신과 계파만을 위한 정치풍토를 개선하고 불공정경선부터 뿌리째 뽑아버리는, 오직 서민대중을 위한 생활정치의 표본이 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무소속=무소속 강세 지역답게 김광영(78) 전 공군사관학교 정치학교수, 장대범(38)씨, 유현주(45) 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박형모(48)씨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표밭을 다지고 있다.

최고령 예비후보인 김 전 교수는 이번이 6번째 도전이다. 그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무사안일하며 군림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세력, 그리고 우리 공동체 사회의 잠들어 있는 정신에 혁명을 하고 싶다"며 또 한 번의 도전에 나섰다.

유 위원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전남도의원을 지냈으며, 18, 19대 총선에서 민노당(통합진보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어 이번이 3번째 도전이다. 그는 "서민의 삶이 바뀌려면 한국 사회·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유일한 30대인 장씨는 순천대 사회체육학과를 졸업하고 피아노 조율사로 활동 중이다. 그는 유니세프와 월드비전 후원 회원으로 사회봉사에 적극적이다.

박씨는 조선대를 졸업하고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주산·부기학원 강사를 지냈으며 건설부동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전남지역 선거구

■관전 포인트

우윤근 인지도 높지만 '反 우윤근' 연대땐 부담

광양·곡성·구례 총선에서는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4선 성공 여부가 최대의 관전포인트다.

인지도가 어느 후보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우 의원은 더민주에서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고,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하는 등 당내 입지가 좋다. 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고 원만한 성품 탓에 중앙 정치무대에서는 비교적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더욱이 새누리당·국민의당·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는 다자구도도 우 의원에게 유리하다는 게 우 의원 측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강점이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 4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3선 성공은 인지도는 높였지만 유권자에게 피로도를 높여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우 의원은 17, 18대 총선에서는 57~59%대의 득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19대 총선에서는 53%만 득표했다. 특히 고향인 광양에서는 5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특히 우 의원의 4선을 저지하려는 다른 후보들의 '반(反) 우윤근' 전선 형성은 우 의원에겐 부담이다.

대부분 후보가 우 의원에게 공격 포인트를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투포트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진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조짐이고, 철강산업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선거구 특징

광양 유권자가 3분의 2 … 민노당·무소속 강세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의 유권자는 16만7653명(지난해 10월말 현재)이다. 이중 광양시 유권자가 11만7394명. 곡성군이 2만6805명, 구례군이 2만3454명이다. 즉, 곡성과 구례 유권자를 모두 합쳐도 광양 유권자의 절반도 안 된다.

이 때문에 현재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14명이 모두 광양 출신이다. 단, 곡성 출신인 국민의당 김정현 대변인이 사실상 이곳에 출마할 뜻을 굳힌 상태여서 주목을 끈다.

유권자 수치상으로만 보면 곡성이나 구례 출신 후보는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광양은 한 당 또는 한 후보에 표를 몰아주지 않고 다양한 표심을 보여왔다. 일단 지난 1995년 1월1일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통합해 광양시가 됐기 때문에 도농이 혼재돼 있다. 특히 광양제철과 컨테이너항만의 영향으로 외부 유입 인구가 60% 이상이 된다.

이런 지역 특성 때문에 보수정당과 민주노동당(또는 통합진보당),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광양·구례 선거구로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유현주 후보는 32.5%를 득표했다. 광양 만으로 치러진 18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 김광영 후보가 18.4%, 민노당 유현주 후보가 14.4%를 각각 얻었다. 광양시장 선거에서도 최근 연속 두 번(이성웅·정현복 시장)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으며 민노당 후보들은 대부분 10% 전후반대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